

만민중앙소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news.manmin.or.kr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처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이재록 인쇄인 김신경 편집인 반금선
 등록번호 다-1840(1989. 7. 12.) e-mail: manminnews@hotmail.com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02-818-7000

MANMIN NEWS

제397호(구417호) 2009. 8. 23.(격주간)

시원하고 쾌적한 일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적 도약한 2009 만민 하계 수련회



전국 남녀장년수련회 교육



수련회 장소에 나타난 일자형 무지개



손끝에 앉은 잠자리를 보며 행복해하는 성도들



각 수련회장마다 잠자리들이 성도들의 손, 머리, 어깨 등에 살포시 앉아 행복을 더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푸른 자연과 벗하며 영성으로 무장하는 시간, 2009 만민 하계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펼쳐졌다. '마음'(요 15:7)이라는 주제로 강사 이희선, 이미경, 주현철, 신동초, 조수열, 지정훈 목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성령충만기도회'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또한 각 선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되새기는 영적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해외 13개국 참석, 기사와 표적 넘쳐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코스타리카, 콩고, 케냐 등 해외 13개국에서 사모함으로 동참한 세계적 수련회였다.

또한 수련회를 위한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보장해 주셔서 8월 첫 주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비가 오는 일기 예보와는 달리 화창하고 시원한 날씨 속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었고, 무지개, 여러 모양의 구름, 별의 이동 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사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각 수련회장마다 성도들의 손, 머리, 어깨 등에 살포시 날아와 앉은 신기한 잠자리들은 수련회의 행복을 더했다. 성도들은 잠자리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했다. 잠자리는

모기, 나방 등을 먹이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해충이나 벌레 없이 쾌적한 수련회가 되었다. 숙박업체 주인은 물론, 수련회장 인근 주민들은 "산 주변이라 벌레와 나방이 억수로 많아 치우는 것이 있었는데 만민 수련회 때에는 어디로 다 사라지고, 성도님들이 가고 나니까 다시 많은 벌레가 나왔다."며 하나같이 신기해했다.

성령의 피로 하나되다

3일-5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린 전국 남녀장년 수련회에는 마산, 밀양, 대전, 부산 등 전국 지교회와 해외 및 중국교구가 함께했다.

대학·가나안·청년·마리아·바울·빛과소금, 만민의 젊은 이들이 3일부터 3박 4일간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6개연합수련회'로 한자리에 모였다.

한편, 농이인선교회는 3일-5일까지 전라남도 무안만민교회에서, 학생주일학교는 3일-6일까지 충북 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주사랑선교회는 18일-20일까지 강원도 횡성 세계유스호스텔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만민 성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와 응답의 넘치는 간증으로 축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 칼럼 |

뿌리로 인해 결실하고

아름드리 나무는 대부분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해도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머지 않아 나무는 말라 죽을 것입니다. 나무에게 뿌리가 중요하듯 사람에게서는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호남형의 사람이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지거나, 존경받는 인물이 권모술수와 비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처럼 겉으로는 좋아보여도 정작 근본이 되는 뿌리, 곧 중심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딤후 4:5)

글 이재록 목사 한국일보 연재 '길'에서



6개연합수련회 캠프파이어



전국 남녀장년수련회 체육대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40-41)

성령을 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바로 기도생활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기도생활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따라서 기도는 신앙인의 기본이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필수요건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1. 영혼의 호흡인 기도생활

사랑과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럴 때야 시험에 들지 않으며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성령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이 살기 위해 반드시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해집니다. 이때 그 원인을 깨달아 회개하고 기도해 나가면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 다시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기도를 중단한 시일이 오랏수록 회복하기가 힘들습니다. 그렇지만 숨을 쉬듯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하늘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2.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함께하던 제자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지요(마 26:40-41). 이를 통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살아 있는 영, 즉 생령이 되게 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고, 결국 죄의 삯은 사망으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이 끊긴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원수 마귀가 주관하니 점점 죄악

으로 물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만세 전에 구원의 섭리를 베풀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죄와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 주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지요(롬 8:26).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밝히 음성을 들려주고 시험을 미리 대비케 하고, 피할 길을 주며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으므로 세상의 욕심을 좇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 가운데 살아가므로 시험 환난이 찾아오고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3.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의 의미

성경에는 육, 육신, 육신의 일, 육체의 일 등 비슷한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먼저, 육이란 영과 반대되는 썩고 변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진리로 변화되기 이전의 인간이나 식물, 동물 등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됩니다. 반면 영은 영원한 것이며 진리요, 참을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인류는 부모의 기를 통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를 원죄라 하며, 자라면서 원수 마귀의 뜻대로 비진리를 행하며 지어가는 죄를 자범죄라 합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를

통해 들어온 죄성이 몸과 결합된 것을 육신이라고 하며, 그 죄성을 낱알이 분류해 놓은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은 거짓, 시기, 질투, 미움 등 아직 행하지는 않았으나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의 속성을 말합니다. 즉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육신의 일이며, 이러한 육신의 일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육체의 일(갈 5:19-21)이라 합니다(영혼육(상) 책자 참조).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베드로의 몸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가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상태로 영에 속한 육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무리 깨어있기를 원해도 피곤과 같은 육의 속성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순간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육신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령 받은 후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로 담대하고 권능 있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 죄를 버리는 만큼 영으로 변화되면 혼이나 육이 영의 지배를 받으므로 피곤이나 두려움 등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4. 깨어 기도할 때 받는 복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 자녀를 미혹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합니다(벧전 5:8). 이러한 원수 마귀 사단의 꾀계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금식기도로 준비하셨으며, 공생애 기간 중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감하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듯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옳은 길을 가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만큼 영혼이 잘되고,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재록 목사 대표 저서 |



영혼육 상
나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
4차원을 넘나드는 심오한 영성과 통찰력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십자가의 도
15개국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영적 잠에서 깨우고 참 생명을 주는 감동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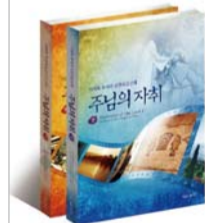
천국 상·하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
상: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
하: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행복과 영화를 누릴 황홀한 천국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한 메시지



지옥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옥의 참상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별 지침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와 영접한 강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방인 복을 전파로 수없이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차이는?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 강해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깨우쳐 주는 예수님의 일대기



고린도전서 강해 상·하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분쟁이나 전도, 결혼, 우상의 제물이나 영적 은사 등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제설교모음 기도 편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고 여는 열쇠, 시공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사건들이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김대성 형제 (1-1가나안선교회, 수원시청 소속 배드민턴 선수)



저는 12살 때부터 밀양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축구 선수, 아버지가 배구 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서 뛰어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갈 만큼 달리를 잘해 육상부 활동을 하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때 배드민턴 라켓을 잡게 되었습니다.

운동에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대표’라는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신앙인의 가장 기본인 예배생활에도 충실했으며 기도생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2년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드디어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하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서울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저에게도 연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숙하며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예배에 빠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충만함이 떨어지니 운동에도 흥미를 잃어갔고, 시합에 나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도 못했지요.

급기야 2006년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손목뼈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당회장님 음성사서함 전화기도를 받고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손목을 다쳐 선수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당회장님 앞에 나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손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치료의 확신이 왔습

니다. 병 간호를 위해 집에 내려가 쉬라는 감독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하계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던 체육대회는 너무나 즐거웠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기쁨과 충만함을 회복한 뜻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2월, 국군체육부대(상무)를 제대하고 그 해 최고의 조건으로 수원시청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실업 데뷔 첫 경기인 경기도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수원시청이 대회 종합 5연패를 목표로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꼭 따야 하는 책임감이 따랐습니다. 데뷔 첫 경기라 저의 마음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매 경기를 앞두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경기를 치른 결과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결승 당일인 주일, 선교회장님께서 저를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웬지 모를 자신감이 불타기 시작했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공중에 나는 듯이 경쾌한 몸놀림으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 3대 0으로 용인 시청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원시청이 종합 5연패를 달성함으로써 저의 입지가 더 굳건해졌음은 물론입니다.

6월 24일부터 열린 전국 실업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저는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두 개의 동메달을 따 국가대표 선발전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발전 날짜와 수련회 기간이 겹쳐 수련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이미 날짜가 결정되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10월로 연기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만민의 젊은이들이 함께한 금년 6개연합수련회 체육대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자 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잘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여겨져 더욱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배드민턴 선수로서는 신장이 약간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빠른 장점을 살려 저는 남들이 잘 때, 남들이 쉬 때, 그리고 휴가 때조차 훈련을 쌓으며 승리의 그날을 마음에 그립니다. 체계는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알리는 너무도 분명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삶의 중심에 계신 축복의 하나님... 그는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았을까?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해도 감감무소식,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친구들을 보며 마냥 부러워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 당장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보험 영업, 그 일을 하기엔 그는 약조건이 많았다. 그런 그가 3년이 지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1-2가나안 선교회 회장 **강세윤 형제(우림에셋 플러스)**의 이야기다.



“보험은 웬지 거부감부터 들더라고요. 솔직히 외모에도 자신이 없고 말도 심하게 더듬고 엄청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서면 앞이 캄캄했거든요.”
계약을 따라 갔다가 말 한마디 못 꺼내고 그

냥 나온 적도 있다는 그가 어떻게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했다. “고객의 질문에 ‘네’라고만 하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니오.’라고 하자 계약은 날아갔지만 마음은 행복했다며 그는 또 말을 이었다.

“한 달에 한 건도 계약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감사했어요.”

호주머니를 털어 하나님께 심으며 원인을 깨

우쳐 달라고 기도하자 자신에겐 없는 줄 알았던 돈에 대한 욕심, 자존심, 조급함 등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못한 계약을 한꺼번에 부어주시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계약이 잘되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교만이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울며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러는 사이 믿음이 자라갔다.

처음엔 ‘이게 정말 내 길인가?’ 고민도 많이 했다는 그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믿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생각지 못한 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p> <p>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2부 · 오전 11:30</p> <p>[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p> <p>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일야예배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00</p>	<p>교회약도</p> <p>시흥대로</p>	<p>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p> <p>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p>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p>
--	--------------------------------	--



잠자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꼈습니다

도노반 피녹 (미국 뉴욕)

저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입니다. 2006년부터 GCN(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목사님도 직접 뵈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기 위해 사모함으로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지요. 각종 예배 및 다니엘절야기도회 참석과 심방을 동행하면서 참으로 모든 것이 감동스러

웠습니다.

특히, 만민 하계수련회 시 하나님께서 많은 잠자리를 보내 주셔서 별레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카메라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역시나 수많은 잠자리 떼가 날아와 성도들의 몸 곳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제 몸에도 잠자리들이 살포시



앉는 것을 보고 감동과 함께 하나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잠자리를 잡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나 몸에 스스로 날아와 앉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지요.

만민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수련회 참석을 통해 영육간에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8/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농악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8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 수련회

고바야시 케이코 (일본 오사카)



한여름의 무더위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초가을의 날씨와 시원한 바람, 태양과 달 주위의 무지개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수련회였습니다. 야외 셋트장에서 저녁 시간에 가진 교육과 기도회에서는 환한 불빛에도 별레나 모기를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수한 잠자리 떼가 캠프장에 날아와 몸의 이곳저곳에 앉아 모두를 기쁘게 해 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수련회였지요.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를 발견해 벗어버리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일본팀을 위해 배려와 사랑을 듬뿍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따뜻하게 섬겨주신 일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해탄을 건넌 학생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다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학생주일학교 하계수련회가 충북 단양 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었다. 금번 수련회에는 일본 이다 만민교회 트리니티 찬양팀 11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찬양제에서 인기상 수상과 체육대회에서 **쿠마가이 수미가 자매**(일본 이다 만민교회, 18세)가 MVP까지 받아 기쁨을 더했다.

찬양팀 모두 한국 수련회 참가를 결정하고 은혜를 사모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다 만민교회 학생부 회장인 쿠마가이 수미가 자매는 성적 향상이 기도제목이었다.

“저도 성적 향상을 목표로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워십 준비와 봉사 등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지난 6월 이다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서 이것을 놓고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 기도를 유승길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에서 7월 2일까지 있었던 시험에서 반 6등에서 2등으로, 학년 전체에서는 25등에서 6등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한국 학생 수련회 참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부족한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쿠마가이 수미가 자매의 어머니는 난소암이 있었다. 2005년 8월, 난소암 진단을 받고 10월 만민중앙교회 창립예배에 참석한 어머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깨닫고 난소암이 치료되었다. 이를 계기로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고, 올해 가정 심방을 받은 뒤 부모님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찾아 태워 버림으로 오빠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며 쿠마가이 수미가 자매는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제16회 만민학생찬양제 인기상 수상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던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캠ป์파이어에 성도들과 함께한 코스타리카 대사 페르난도 보르본 보아스(좌측)